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7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7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통일여명 기자 한영희 (통일여명 보도 54호 주체91, 2월 5일)

2월 3일 저녁 11시, 문화방송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록영화를 방영하였다.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기록영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이 진실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기록영화로 인해 그간 미제와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작되었던 ≪**김일성**장군가짜설≫의 허구성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이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투쟁업적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실로 확인되었다.

제작측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다니신 길림육문중학교와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안도, 대표적인 유격근거지와 전적지인 소왕청과 홍기하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하고 인터뷰를 하였으며 주석님께서 친히 전개하신 보천보전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줌으로써 주석님의 위대성이 부각되게 되었으니 제작자의 노고는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대한 주석님의 항일역사를 심히 축소하고 미제가 자행한 6.25전쟁을 남침으로 왜곡한 사실은 제작자의 인식상 한계와 보안법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온갖 극우논리가 횡행하는 이남사회에서 위대한 주석님의 항일투쟁업적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젼에 공공연히 방영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마련하여 주신 6.15공동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민족민주운동이 전진하고 보안법이 철폐되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일체의 왜곡과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방영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시었다. 하루빨리 위대한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셔야 할 것이다.

MBC, 이제는 말할수 있다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우리사회 깊숙히 내면화된 ≪레드컴플렉스≫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 거침없이 ≪성역≫을 침범했다. 입밖에도 꺼내기 힘들었던 **김일성**주석에 대해 공론화 했다.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김일성**주석에 관한 ≪오해≫와 ≪편견≫의 베일을 하나 하나 벗겨나갔다. 방송이 끝나자 ≪네티즌≫들은 방송자체에 대한 찬사와 성원을 보냄과 동시에 **김일성**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걸음씩 더 ≪전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 또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 조국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뉴스 2002/02/04)

통일여명 보도

1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노작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3)

세기와 더불어

3 1장 4절 타향에서 타향으로 (2)

칭송

5 입북어민들의 감격 (1)
5 탑이 솟습니다
5 **김정일**동지는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수령

한국민족민주전선

6 한나라당 이회창, 국회에서 매국배족적 망발
6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년 2월 5일)
7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8 노동자가 앞장에 나섰다
8 외세와의 공조를 당장 중지하라

광고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3. 속도전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5일 뉴스
10 북남공동선언따라 조국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서자(2) / 로동신문 논설
11 높은 실력을 지닌 유능한 실천가가 되자 / 로동신문 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2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13 부시방한 저지,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13 의원 5명 미대사관 항의방문
13 파월 발언과 미군의 양민학살
14 전국 대학 2백여개 과, ≪금강산 모꼬지≫ 추진
14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14 이회창 방미규탄 1인 릴레이 시위 / 정치시정배 이회창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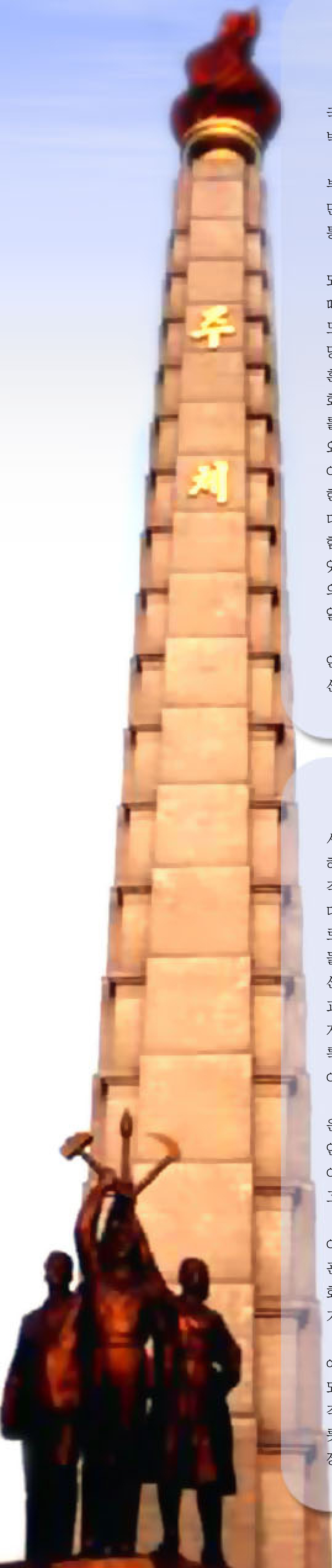
15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차이에 대하여 (1)

조국통일3대헌장

1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3)

주체86(1997)년 8월 4일



3

북과 남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과 남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의 권력기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북남 사이의 긴장격화와 대결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극한적인 적대관계로 전변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현정권이 출현한 이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격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짙어 가고 있다. 북남관계를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반통일적 매국배족적 죄행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것은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누구도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자주의 입장, 애국애족의 입장에 설 때에만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에 돌아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과 남 사이에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북남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군사적 대결상태도 가셔질 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실현될 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와 함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 수 없게 할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 참화를 빚어내게 할 수 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실지로 존재하는 것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다.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험이 없으면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소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라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페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유관국가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관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힘의 입장에서 조선문제를 대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조미관계도 두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좋게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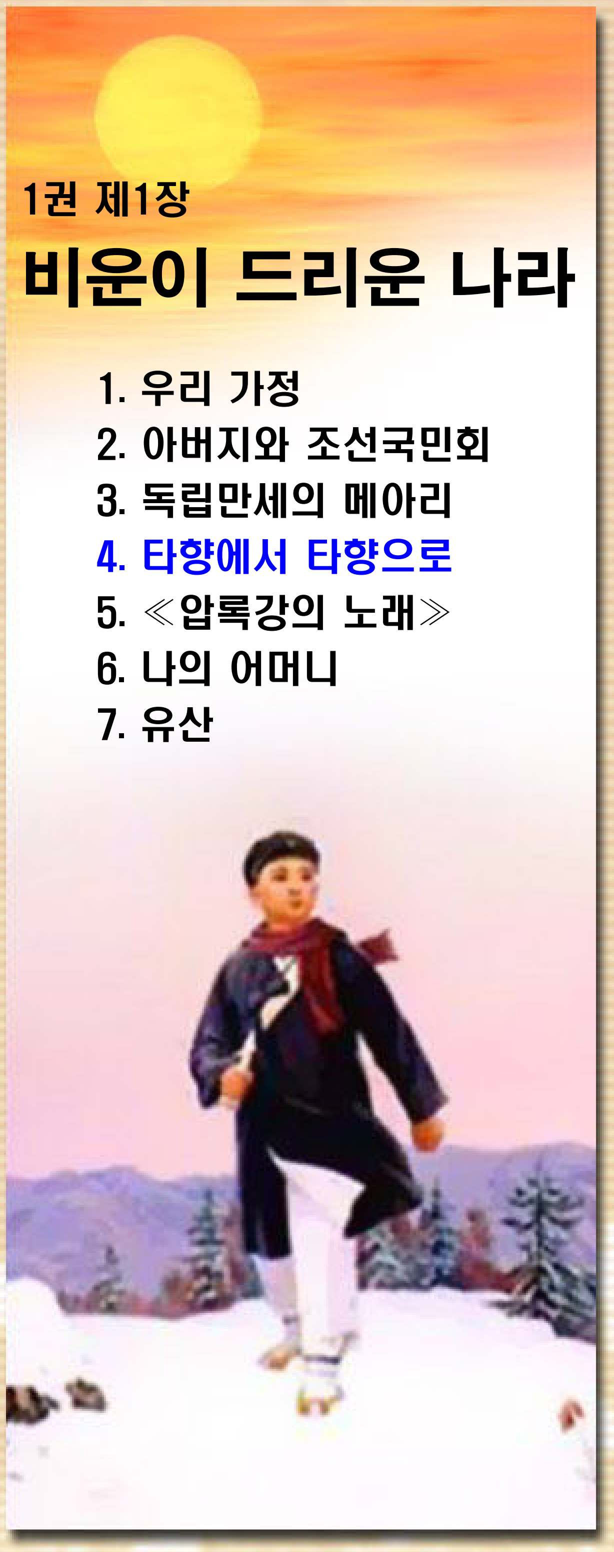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분열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 인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조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서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역사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끝)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4. 타향에서 타향으로 (2)

이제는 림강에서도 더 살수가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사짐을 꾸려가지고 남의 나라 지경의 타향에서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 식구가 이고 지고 메고 림강을 떠났는데 인력으로는 이사짐을 도저히 다 나를수가 없어 방사현이라는 전도사가 발구를 끌고 우리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구까지 동행해주었다. 림강으로부터 팔도구까지는 25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림강과 마찬가지로 팔도구도 압록강을 끼고 있은 국경마을이였다. 림강대안인 중강땅에 일본헌병대가 있고 경찰관주재소가 있는 것처럼 팔도구대안인 포평에도 일본헌병대분견소와 경찰관주재소가 있었다.

포평은 조선의 북단에 속하지만 독립운동의 기본무대가 만주로 옮겨진 뒤여서 일제는 이 일대에도 폭압력량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포평에서 파견된 밀정들과 헌병, 경찰들이 매일같이 팔도구에 넘어와 애국자들을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우리 집은 팔도강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합수목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다 ≪광제의원≫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우리 집 오른쪽에는 조선국민회원인 김씨네가 살았고 왼쪽에는 국수장사를 하는 다른 김씨네가 살았으며 길건너 맞은편에도 역시 국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씨네가 살았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압록강연안의 무장부대들에 물자를 계통적으로 대주던 장사군형제도 김씨였는데 근처에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 집을 둘러싼 네 김씨네들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였다.

다만 뒤집 하나가 문제였다. 후에 판명된 것을 보면 그 집 주인은 포평경찰서에서 박아넣은 손세심이라는 밀정이였다. 이 손가도 원래는 중강에서 살았는데 일본경찰기관의 지령을 받고 팔도구에 뒤따라와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였다.

아버지는 팔도구에 와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들가운데는 황씨성을 가진 사상가도 있었다. 그는 남사목재소에서 서사로 일하는 과정에 선진사상의 영향을 받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내막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련락임무를 수행하였다. 황씨는 임무를 받으면 인차 팔도구를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행하고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 새 과업을 기다리군 하였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술상을 앞에 놓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사히신붕≫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열을 내여 시국평을 하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낚시질을 하러 가는 날은 그도 고추장단지를 들고 강가에 따라나가 그물질도 하고 고기밸도 따면서 천렵을 하였다. 그 사람이 이렇게 3년동안이나 우리 집에 다니다나니 어떤 해 추석을 우리와 함께 쇤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200리나 떨어진 남사목재소에 여러번 찾아가 로동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조직에 묶어세웠다. 라죽보통학교 교원들도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어느해였던지 이 학교에서 동맹휴학사건이 일어나 크게 소문을 낸적도 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많이 다닌곳의 하나가 포평례배당이였다. 례배당이라 하지만 뾰족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집이 아니라 보통 동기와집으로서 사이벽을 터쳐 통간으로 쓰는 것이 여느집과 다를뿐이였다. 아버지가 팔도구에 온 다음부터 그 례배당은 군중을 교양하는 장소, 국내혁명가들의 집합장소로 리용되였다. 아버지는 례배가 있는 날마다 포평에 건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선전을 하였다. 때로는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었다. 아버지가 못가는 날은 어머니나 형권삼촌이 례배보러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교양을 하였다. 나도 철주를 데리고 그 례배당에 찾아가 아버지한테서 풍금타는 법을 배웠다.

포평거리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비밀련락장소들이 많았다. 포평주재소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비밀사업을 하였다. 이 사람이 주재소의 비밀을 탐지하여 우편물위탁소에 알려주면 위탁소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하군 하였다.

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비밀련락을 자주 다녔다. 언제인가는 포평주재소에 갇힌 애국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입해준적도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편물위탁소였다. 아버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형권삼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지국을 맡아보았는데 수입을 따로 없었지만 신문은 거저 얻어볼 수 있었다.

나는 한주일에 두번 정도 그 위탁소에 건너가군 하였다. 강이 얼기전에는 포평에 다녀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강이 언 다음에는 이틀에 한번씩 갔다오기도 하였다. 내가 공부를 한창 할 때에는 형권삼촌도 다니였다. 아버지앞으로 우편물이 많이 올 때에는 나와 형권삼촌이 함께 건너가서 날라오기도 하였다. 우편물은 주로 소포와 잡지, 일본에서 출판한 의학서적들이였다.

우리는 포평으로 다닐 때 헌병보조원을 하던 홍종우의 방조를 많이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밑에 혁명의 지지자, 방조자가 된 사람이였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팔도구도 포평헌병분견소의 관할구역이였다. 이 분견소에 주재소순사들도 복종하고 세관관리들도 복종하였다. 당시 국경지대에 있는 헌병기관들의 권한이 대단하였다.

아버지와 조직성원들은 늘 헌병감시소의 동향을 주시하였고 그들역시 우리 집에 대해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홍종우가 헌병보조원옷을 입고 처음 우리 집 약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몹시 긴장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러보로 경계하였다. 홍종우는 서름서름한 표정으로 약방안을 한참동안이나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 오늘 로형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에 있는 장순봉이라는 사람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외다. 내가 국경쪽으로 전근되어올 때 그 사람이 나더러 후창에 가거들랑 김형직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으니 수고스러운대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내자신도 로형을 만나보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헌병옷을 입은 사람의 언행치고는 매우 겸손하고 점잖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날 그에게 곁을 잘 주지 않았다.

≪중강의 김득수오장하구는 그렇게도 허물없이 지내시던분이 오늘은 웬일이세요?≫

홍종우가 돌아간 다음 어머니가 묻는 말이였다.

≪홍씨의 헌병옷을 보니 평양감옥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더구만.≫

아버지는 인사를 전하려고 모처럼 찾아온 사람한테 미안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홍종우씨가 오면 잘 대접하자고 말씀하였다.

홍종우는 그후에도 우리 집 출입을 계속하였다.

어느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다.

≪홍종우가 우리 집을 내탐하러 왔으면 나는 홍종우를 통해 헌병대를 내탐하겠소.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내 한몸이 위태한 것으로 그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소. 중강에는 김득수, 포평에는 홍종우라, 김형직이 가는 곳 어디엔들 헌병이 없겠소.≫

그날부터 아버지는 홍종우를 적극적으로 교양하였다.

헌병보조원을 대하던 딱딱한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한겨레로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대접도 잘하였다. 차차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알고보니 그는 본래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였는데 고향에서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살길이 열리지 않아 팔자를 고쳐보자고 헌병보조원시험을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3.1인민봉기 때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헌병과 경찰의 치떨리는 만행을 목격하고는 헌병보조원시험에 응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농사나 짓자고 하였다. 그런 때에 합격통지서가 오고 교련호출장이 왔다. 이렇게 되어 홍종우는 헌병보조원이되였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개편하면서 ≪관제개혁≫의 명목밑에 국내의 헌병기관들을 축소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는 동시에 국경지방의 헌병기관들을 보강하였다. 조선인헌병보조원들은 거의나 경찰로 전환되거나 국경지대로 이동되였다. 그 사품에 홍종우도 후창으로 오게 되였다.

하루는 홍종우가 아버지한테 와서 헌병대의 무장을 탈취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그런 용단을 내린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신이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몸에 왜놈의 군복을 걸쳤다고 어떻게 넋까지야 더럽히겠소. 5천년 력사국을 자랑하는 우리가 왜놈의 노예살이를 앉아서 순순히 감수만 할 수야 있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현 직무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오. 헌병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이 여러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가 있소.≫

홍종우는 그후 아버지의 말씀대로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주었다. 홍종우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자기가 도선장감시당번이므로 강을 건너갈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보내라고 미리 통지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홍종우는 여러차례나 혁명가들의 도강을 보장해주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번 넘기였다. 아버지에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기미가 엿보이면 홍종우는 인차 팔도구에 건너와 ≪순사들이 건너올테니 주의하시우.≫하든가 어머니에게 ≪김선생이 집에 오시면 며칠간 더 촌에 나가있다가 돌아오라고 이르십시오.≫하고 귀띔해주군 하였다.

어느날 헌병분견소 소장으로부터 대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사람들의 동태를 탐지할 과업을 받고 팔도구에 건너왔던 홍종우는 포평주재소의 순사가 아

조국의 북변 포평

버지를 결박해가지고 나루터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홍종우는 그 순사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호통쳤다.

≪이 선생은 헌병대의 일을 보는 우리 사람인데 왜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체포하는가? 앞으로 김선생문제가 제기되면 너희들은 간섭말고 나에게 알려라.≫

그 순사는 잘못했노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버지의 팔에서 포승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수 있었다. 한번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헌병이 분견소 소장에게 팔도구의 김의사가 사상가라고 하는데 붙잡아서 문초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다. 홍종우는 ≪정보자료≫를 기록한 헌병일지를 펼쳐보이면서 이 자료는 다 김의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사상가들의 동태를 알려면 사상가로 가장해야 그들의 진짜속내막을 알 수 있다, 김의사는 우리 사업에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 ≪정보자료≫라는 것은 다 홍종우자신이 꾸며낸 허위자료였다.

1923년 5월 헌병보조원제도가 폐지되자 홍종우는 자기도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적기관에 복무할 생각이 더는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그날 그를 설복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아버지는 그에게 고향에 돌아가 경찰기관 같은데 들어가있으면서 종전처럼 계속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타일렀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만경대에 찾아가서 나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나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홍종우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만경대에 찾아가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문안인사를 전해드리었다. 그는 아버지가 시켜준대로 고향에 순사로 일하다가 상부에 여러번 제기하여 1927년부터는 대평주재소 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임하자마자 주재소 심부름군에게 술과 돼지고기, 귤을 지워가지고 우리 만경대집으로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리였다. 만경대도 대평주재소의 관할구역이었다.

홍종우는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조선민족의 량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일가를 잘 보호해주었다. 그가 대평주재소로 자리를 옮긴 목적도 우리 만경대집을 보호해주자는데 있었다. 이 사람이 남리담당으로 있은 동안은 우리 할아버지나 형록삼촌이 놈들의 성화를 덜 받았다. 주재소수석이 그에게 늘 김형직이네 일가는 과거부터 배일사상가들의 집안이니 철저히 경계하고 수시로 가택수색도 해야 한다고 훈계하였지만 홍종우는 매번 별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어물쩍해넘기군 하였다.

무장대 성원들의 모임을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해방직후 인민들이 도처에서 친일파들을 붙들어다가 두들겨팰 때에도 홍종우만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지냈다. 그가 고향에서 은급순사노릇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악한짓을 하지 않고 일본법에 걸리는 행위를 보고서도 매번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에 미움을 사지 않았다. 그는 과거경력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몇해후 나는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순천에서 홍종우를 찾아냈다. 찾고보니 그는 벌써 환갑이 넘은 로인이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도간부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였다. 홍종우는 도간부학교를 다닌 다음에도 자기의 천품대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그는 말년을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적을 발굴하는데 고스란히 바치였다. 홍종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한테는 순사옷이나 순사의 간판이 방해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간판이나 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이다.

후대교육은 팔도구시절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관심하는 분야였다. 아버지는 교원의 간판을 의원의 간판으로 바꾼후에도 교단에 서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대교육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학교나 야학을 통하여 군중을 계몽시키고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나라도 찾을 수 있고 부강한 독립국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1924년 여름에 삼원포에서는 조선소학교 교원들을 위한 여름강습이 진행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육내용과 노래곡목까지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팔도구골안에 조선인학교가 서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포평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쌀을 지고 와 자체로 밥을 지어먹으면서 조선글을 배웠다.

팔도강의 빨래터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후대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이다.≫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없다. 글을 알아야 사람구실도 할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내가 다니는 팔도구소학교는 4년제중국인학교였는데 수업도 중국말로 하고 취급하는 과목도 중국의 것이었다. 시내에는 조선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개별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력사를 배워주고 레닌, 손문, 워싱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 가운데서 몇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그때 ≪조선지위인≫, ≪조선영웅전≫, ≪로국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통제를 엄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안하면 나나 철주동생은 물론, 형권삼촌까지 붙들어세워놓고 종아리를 칠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의 공부를 많이 보살펴주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무슨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 어서 공부나 해라.≫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릴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옷 한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처럼 마음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수 있을가 하고 늘 궁리하였다. 그러다가 운동화를 사 신으라고 어머니가 준 돈으로 포평에 건너가서 고무신을 한켤레 사다드리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나이는 어려도 속은 깊구나. 나야 아무런 신을 신은들 뭐라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어머니는 기쁜거란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명랑하게 자라나도록 정성을 다 기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구김살을 내지 않고 락천적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려서 장난을 제일 많이 한때가 팔도구시절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날은 어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험한 장난을 할 때도 있었다. 장난이 없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얼음판에 너비가 1메터도 넘는 큼직한 구멍을 뚫어놓고 강변에 한줄로 늘어서서 그 구멍을 뛰어넘을 내기를 하던 팔도구시절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70년전의 동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때 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 조선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멍을 날아넘었다. 아이들은 조선군대가 되지 못하는 수치를 면하려고 있는 힘을 다내여 얼음구멍을 향해 달려가군 하였다.

보폭이 작거나 겁이 많은 아이들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 날이면 물에 옷을 적신 아이들의 집에서는 화로불에 옷을 말리며 저 평양집 성주때문에 온 동네 아이들이 동태가 되겠다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성주가 팔도구대장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동네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푸념을 할 때마다 곧잘 내 이름을 거들군 하였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팔도구뒤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군대놀이를 하느라고 어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운적도 있었다. 그런때면 팔도구사람들이 온밤 자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다니었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그러나 만리대공으로 날아다니는 자유분방한 동심을 자물쇠로 잠가둘수는 없었다. 한번은 그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종항이 자기 집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뢰관상자에서 뢰관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였다. 그 집 창고에는 독립군부대들에 보낼 무기나 피복, 신발 같은 것이 가득 쌓여있었다. 김종항의 형들은 일본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로동복이나 지하족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여 무장대들에 보내주었다. 이 사람들이 독립군에 물자를 대주느라고 배 두척에 말까지 갖추어놓고 사방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상품을 연방 무데기로 도매하여왔다. 우리는 그날 화로불곁에서 호박씨를 까먹으며 놀았는데 김종항이 그 뢰관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자꾸 불었다. 그러다가 뢰관에 불찌가 닿아 그만 폭발하였다. 그바람에 그는 여러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의 형이 그를 이불보에 싸업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뛰어왔다. 뢰관때문에 상했다는 소문이 경찰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 봉변을 치를수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김종항을 우리 집에 숨겨놓고 20여일간이나 치료해주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고나서야 김종항네 집이 독립군부대들에 군사물자를 조달해주는 애국상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무렵에는 실로 철이 없다고 할만큼 모험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가지 그늘만은 가실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망국의 고민이 더 크게 자라올랐다.

일화

입북어민들의 감격 (1)

1971년 4월 동해와 서해에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쳤다. 때아닌 폭풍으로 이남의 고기잡이배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숱한 배들이 포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침몰되고 파손실종되는 참상이 빚어졌다.

폭풍에 의한 피해이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같은 바다를 낀 이북에서는 자그마한 배 한척도 폭풍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 판이한 현상의 기저에는 어민들의 생명재산을 집권당국이 보호해 주는가 안해 주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가 놓여 있었다.

사실 이북에서는 폭풍예보가 있은 즉시로 모든 배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 어떤 배도 바다에 나가있지 않도록 하고 설사 강한 폭풍이 밀려와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다 취했다. 그런데 이남 집권당국은 폭풍예고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아 고깃배들이 폭풍이 밀려온다는 것조차 모르고 날바다위에 떠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에 휘말려 숱한 배들이 물에 잠기고 파손실종되게 된 것이었다. 이남어민들이 그때 이 재화를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면서 정부에 그 피해보상을 요청한 것은 전적으로 의당한 것이었다.

이때 조난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고깃배들이 있었다. 그것은 풍랑에 밀려 이북영해에 들어온 배들이었다.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이 사나운 폭풍을 무릅쓰고 희생적으로 출동되어 파손된 배와 어부들을 구원해준 것이었다.

해군함정들의 출동, 조난어부들의 구원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동포애에 넘친 손길에 의한 것이었다. 이남어민들이 당한 재화를 놓고 가슴아파하신 영도자님께서는 난파선어민들이 날바다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펴시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파손된 배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유지하던 어부들이 죽음직전에 구조되어 이북의 포구로 실려갔다.

이남 난파선어민들이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받으신 영도자님께서는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동포애의 뜨거운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한편 그들 모두를 평양에 부르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이남어민들은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았다. 뱃놈으로 불리우며 온갖 멸시와 천대만을 받고 살아온 그들을 이북의 모든 사람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관접대부로부터 정부요직에 있는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친형제나 친부모와 같이 대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고마웠다. 그들에게는 꿈에서나 그려보던 훌륭한 숙식이 보장되고 바다에서 입은 상처는 물론 몸에 지니고 있던 고질병까지 말끔히 가셔내는 치료대책도 세워졌다. 그리고 파손된 고깃배도 원래보다 더 훌륭히 고쳐주었다. 이 모든 것이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관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매일이다시피 그들의 신상에 대하여 걱정하시었으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었다. 무엇을 더 베풀어줄 수 있을까. 그분께서는 이렇게 늘 심려하시었고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그들을 보살펴주라고 당부를 하시었다.

한번은 관계부문 일군들이 작성해 올린 이남어민들의 평양체류일정문건을 보아주시었다. 체류일정은 기본상 잘 짜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으시었다. 거기에는 어민들을 잘 대접할데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들에게 문화적인 휴식과 생활을 보장해 줄데 대해서는 덜 고려되어 있었다. 물론 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바람직한 것은 문화적인 휴식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빈곤한 생활전선에 부대끼다나니 언제 한번 극장구경이나 해봤겠는가.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공백으로 되고 있는 그것을 안겨주고 싶으시었다. 그리하여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남조선어민환영공연도 조직하고 어민들과 예술인들과의 상봉모임도 조직하라고 이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관계부문 일군들은 입북어민들의 문화생활조직에 큰 힘을 돌리게 되었다.

(내일 계속됩니다)

송시

탑이 솟습니다

민중시인 김제보

탑이 솟습니다
저기 평양의 하늘 높이
그것도 통일거리 위에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이 솟습니다

가고 싶어, 보고 싶어
우리 정성, 우리 땀도 바치고 싶어
이남 민중 누구나 마음의 창을 열고
발돋음, 키돋음 바라보며 탑이 솟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기어이 통일의 문을 열고야 말리라는
금강석보다 굳센 그 의지
탑을 받들어 **으로 ***
6.15공동선언 그날로부터
하늘을 찌를 듯한 겨레의 통일열기
쭉쭉 탑신으로 솟는 겁니다

그리움에 받쳐 목놓아 부르며
두팔벌려 두 여인의 형상
통일의 광장에서 얼싸안을
7천만 우리 동포 모습입니다

통일의 영수이신 **김정일**장군님
통일의 원점을 정해주시듯
몸소 정해주신 위치, 몸소 보아주신 디자인대로
날을 따라 완공되는 탑입니다

탑 이름도 그 이름 뜻깊은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
자자구구안고 솟는 탑입니다

분단된 오늘에는
통일로 부르는 투쟁과 단결의 탑
통일된 내일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추억과 영광의 탑

진정 통일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조형의 예술로 생생히 보여주며
평양의 통일거리에 통일탑이 솟습니다
통일새날의 해돋이를 받들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이 솟습니다

흠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수령

여러 나라 당 지도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주시대의 걸출한 영도자로,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 뿐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구된 후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건설, 당건설, 정권건설, 사상사업, 청년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명철하게 밝히시었으며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가리켜주시었다.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사회주의는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이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을 가지고 있기에 조선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미래를 담보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영도와 실천으로 사회주의 위력을 과시하고 계신다.

마다가스카르 모니마사회주의조직(당) 총 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는 현재는 물론 21세기 세계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실 위대한 영도자,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오늘 조선노동당은 온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위력한 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인민적이고 가장 자주적인 불패의 사회주의 나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실 유일하고 공인된 영도자로 모시고 있으며 사회주의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 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사상과 영도, 덕망에서 위대하시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실 공인된 영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무기로 사회주의의 본보기, 세계사회주의 보루를 튼튼히 지켜나가고 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사회주의 보루는 영원한 것이다.

구국의 소리

한나라당총재 이회창 국회에서 매국배족적 망발

화제의 초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2월 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이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야말로 사대매국노의 매국배족적 망발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미국대통령 부시가 미의회에서 한 연두국정연설을 통해 이북을 대량살상무기개발국이라고 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비난해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회창이 국회에서 상전 부시와 똑같은 말을 지껄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치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난달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해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올리면서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 등에 대해 떠들어 우리 겨레로부터 더러운 개질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회에서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문제를 들고 나와 이북을 맹비난한 것은 지금까지 *****없는 일로써 오직 사대매국과 반통일근성이 골수에 찬 이회창만이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북에서 핵무기와 생물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고 또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있지도 않은 문제를 코에 걸고 이북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것은 바로 미국 상전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잘보여 어떻게하나 차기 대권을 장악하려는데 그 흉악한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핵전쟁을 강요하려는 장본인이 바로 미호전계층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북을 침공하고 한반도전체를 장악, 지배하려는 목적아래 북침전쟁준비를 가속화해온 미국호전계층은 미국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이북을 침공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부시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북에 대한 **과 *** 폭언을 한 것은 이걸 웅변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고 평화가 보장될수 있은 것은 바로 선군정치로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은 이북때문입니다.

이북이 아니였다면 한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나 잿더미가 됐을 것이고 이회창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노라하는 이회창이 이걸 모를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북을 악랄하게 헐뜯는 것은 이회창이야말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대결에 키질을 하는 극악한 반통일 사대매국노, 역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제의 검찰서기 노릇을 하면서 개질을 한 그의 애비처럼 더러운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 개질을 하면서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고 민족에게 무서운 핵재난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을 우리 겨레와 민중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각계 민중은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이고 통일의 원수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5일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망언을 규탄
통일연대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해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이북을 대량살상무기개발국가로 지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데 언급하고 이같은 적반하장격의 망언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망언의 심각성은 전쟁확대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옮겨오려는데 있으며 남북관계진전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에 찬물을 끼얹는데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세계평화위협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화,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제아무리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기운을 압살하려해도 우리 민중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의지는 시대의 대세이며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부시와 미국의 대북정책 강력히 비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여야개혁파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일 오전 긴급모임을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한반도문제는 민족문제로써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민주당 김성호의원이 전했습니다.

김성호의원은 또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 의원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임시국회 회기내에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의 대북강경정책

한나라당 이회창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 같은 망언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추종하는 자신의 반민족적, 친미사대주의적 근성을 또다시 드러낸 용납못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란 부시행정부가 북을 고립압살하며 저들의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운운한 것은 미국에 아부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계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시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모독해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동족을 모해하려는 망발을 한 것은 미국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6.15공동선언이행에 차단봉을 내리고 전쟁을 도발하려는 용납할수 없는 민족반역행위라 하겠습니다.

사대매국노 이회창은 자신의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과 겨레앞에 사죄해야하며 전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오늘의 연단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2월 4일~5일)

조선일보의 반북반통일책동이 새해에 들어와서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어서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민족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인 김중배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이철씨 보내드립니다.

사회의 여론을 옳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정의를 선도하고 불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언론의 자세이고 임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언론을 사회의

선구자, 목탁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언론의 본연의 자세와 사명에서 벗어나 진실을 왜곡, 오도하고 모략을 일삼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 그 대표적인 언론집단이 바로 우익보수세력을 대변해서 온갖 모략을 다하고 있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의 작태를 보면 사회적 불안과 불신, 민족적 대결을 조성, 조장하는 어용나팔수, 민족반역의 집단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악을 쓰는 것은 조선일보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조선일보가 취하고 있는 행태만봐도 이 반북매문지가 얼마나 극악한 반역의 집단인가를 잘 알수 있다.

6.15공동선언발표로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때 유독 조선일보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담질로 지면을 메꾸었다.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유일무이한 통일이정표이다. 조선일보는 남북공동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공표되자마자 통일은 어느 한쪽의 체제와 동향에 따라 실현될수 없다고, 그 체제가 절충된 통일은 있을수 없다고 입삐뚤어진 소리를 했다. 이것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을 성숙시켜 통일을 열어나가기로 한 공동선

언에 전면 도전하고 부정해나선 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인 궤변을 그대로 반영해 공동선언에 대해 북에 굴복하고 이용당한 것이라고 떠들었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만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동선언발표후 오늘까지 반민족적, 반통일적 기사들로 지면을 메꾸는 망동을 일삼아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6.15공동선언에 역행해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고 비열한 모략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을 헐뜯는 악담을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북은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려하지 않고 자주와 외세배격 그리고 주체사상의 깃발만을 들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이 무기력하고 화석화됐다는 걸 말해준다고 떠들었다.

매문지로써 철두철미 예속과 매국, 파쇼와 분열을 찬미하고 자주독립과 민주통일을 반대해온 범죄행적으로 일관되어온 조선일보로써는 자주와 주체의 진리에 대해 알리 만무하다. 북으로 말하면 자주정치로 세계의 격찬과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유일의 자주독립국인 것이다.

자주성, 주체성이란 털끝만치도 없고 오직 미국상전의 지휘봉에 따라 식민지통치만을 찬미해온 조선일보가 감히 북의 자주정치, 주체사상을 헐뜯으며 악담질을 하는 건 민족배반의 악행으로 마땅히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또한 북에 외세배격주장을 시비해나섰다. 창간후 80년여동안 일본과 미국상전의 발바닥을 핥으며 기생해온 조선일보로써는 외세배격주장이 자기의 명줄을 끊는 비수로 여겨졌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9.11테러사건과 관련해 북이 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폐쇄의 울타리를 높이고 있다고 악담질을 했다.

9.11테러사건과 관련해 북이 모든 테러를 반대한다고 공언한 건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땅의 호전세력들처럼 테러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북의 동향을 운운하며 동족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강요대로 무고한 아프간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해 파병을 해야 옳은 처사라 할수 있겠는가.

외세배격은 우리 국민이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북의 외세배격주장을 시비해나선 것은 조선일보가 철저한 친미사대매국집단의 매문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의 주적론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요구에 대해서 시비하면서 이것은 북이 6.15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이것 또한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과 짝짜궁을 하는 소리이다.

6.15공동선언과 주적론, 국가보안법이 양립될수 없다는 건 우리 민족을 넘어 세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주적론과 국가보안법고수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행위야말로 민족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에 역행하는 민족반역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최근에 이른바 국경없는 ≪인권회의≫ 이름을 도용해 북의 강제수용소에서 신생아살해니 뭐니하고 떠들었다.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곳이 바로 북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또 경탄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북에 강제수용소가 없다는 것 역시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벙어리 제마음속 생각을 한다고 인간존엄이란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말세기적 현상만을 목격해온 조선일보는 그 어지러운 시각으로 이북의 현실을 오도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왜 새해 벽두부터 입에 칼을 물고 악의에 차서 북을 비방중상하고 온갖 모략을 꾸며대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빗장을 걸어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이행돼 남북간의 화해와 합력, 단합이 이룩되고 나라가 통일되면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대변지, 나라의 분열과 민족대결책동으로 연명해가는 반통일세력들의 어용나팔수, 반북모략지로써의 자기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행위는 임종에 다다른 반공매문지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부릴수록 임종의 시각이 더 빨리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성업실현을 한사코 훼방해나서는 조선일보를 그대로 놔두면 온 겨레가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미 조선일보불매운동을 벌인지 오래다.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 조선일보는 머지않아 지난날의 더러운 행적을 안고 땅속깊이 매장되고 말 것이다.

≪조선일보를 참해한다≫, 이철씨 말씀들으셨습니다. 조선일보가 대세를 거역하고 계속 반북반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돌아올건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노동자가 앞장에 나섰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2월 4일~5일)

지난 1월 15일 미국대사관앞에서 제28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에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성원들과 함께 대우자동차노조 소속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내외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책동으로 이 땅의 노동자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미군철수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날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기백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28차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올해 반미자주화실현투쟁의 선두에 우리 노동자대중이 당당히 나섰음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첫출발을 아주 의의있게 잘 뗐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기에 이룩한 질적인 의식발전에 걸맞게 올해는 직접적 행동으로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앞장에 노동자대중이 나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난 시기에 실지체험을 통해서 침탈적인 미제의 정체를 바로 인식했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근로민중의 근본적인 삶의 개선도, 민족자주통일도 있을수 없다는 걸 잘 알게된 노동자대중입니다.

불의에 가차없는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본데 그친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올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던 것입니다.

특히 올해 첫 시작부터 노동자계급의 제28차 반미연대집회참여는 이를 계기로 사회각계층과의 연대투쟁강화에 실천적 모습으로 등장해서 모든 대중운동에 보다 큰 힘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생존권쟁취를 비롯한 사회민주화실현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 등 모든 대중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 더욱 악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각계와 연대해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건 자명한거죠. 승리는 오직 하나로 굳게 뭉친 힘에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모든 운동에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올들어 2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각계와 함께 반미연대집회에 참여한 것은 지난 기간 운동중심밖의 테두리를 맴돌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깊이 들어가 노동자들과 반미투쟁현장에 발을 잠그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운동가들의 잡도리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운동들에서 각계 민중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보조를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이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계 민중과 어깨겯고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올해 투쟁의 첫걸음을 잘 뗐는데 이를 적극 살려 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사회각계를 비롯한 전민중이 하나로 뭉쳐 사회민주화실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각계층 민중과 함께 합법적 공간속에서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여기에 근로민중의 생존권은 물론 이 땅에서 미국을 내쫓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도 철저히 실천할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반미연대집회에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면 내일의 투쟁에는 2000명, 20000명, 아니 1300만 전체노동자가 다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노동운동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대중적으로 보다 강력해질수록 이를 방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겁니다.

근로민중의 피땀을 빨아 저들의 부귀영달을 추구하는 자들과 이에 기생해서 더러운 정치적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자들은 각계민중의 단합되는 힘, 뭉친 힘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이번 반미연대집회에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안당국은 앞으로 모든 권모술수와 공권력을 동원해 범국민적인 연대연합을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노동운동권과 모든 대중운동권안의 대립과 이간을 조성시켜 분열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할 것입니다.

노동운동가들을 비롯한 모든 운동단체들은 이에 각성을 높이고 공안당국의 분열이간책동에 주동적인 연대투쟁공세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할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조직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한편 분열주의세력이 발붙일 사소한 틈도 주지않도록 대오를 굳게 묶어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올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에서의 승리를 기약할수 있게 됩니다.

외세와의 공조를 당장 중지하라

석학 (구국전선 주체91년 2월 1일)

지금 미국과 현당국자들사이의 전쟁공조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현당국은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며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이북의 동향을 운운하면서 취했던 이른바 ≪비상경계조치≫를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한미전쟁공조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는 지난 1월1일 새해 ≪시무식치사≫라는 데서 올해 대북관계에서는 ≪한미일공조체제≫를 계속 견지해 나가며 ≪한미동맹강화≫를 올해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한국전역에서는 이북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호전광들과 우익보수세력들의 입에서는 ≪주적≫나발이 그칠새 없다. 검찰, 경찰은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통일세력이 외세와의 ≪공조≫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반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해서이다.

외세는 저들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미제는 민족분단의 장본인이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세력이다. 미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미제가 이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다 못해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나와 반북압살책동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다.

반북대결과 압살을 위해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말하는 것은 완전한 허위기만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얻을 것이란 예속과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뿐이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증명해주는 진리이다.

이러할진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못해 그토록 기를 쓰는 침략자들과 ≪공조≫하는 것이 반북, 반통일 대결전쟁책동으로밖에 될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하지 않는가.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것을 확약한 남북공동선언에 역행하여 침략적인 외세와 ≪공조≫하는 것으로 민족을 반역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우익보수세력들의 행위를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것은 통일과 분열, 단합과 대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밖에 받을 것이 없다.

현당국자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한미공조≫,≪한일공조≫를 당장 파기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와야 한다.

각계층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복종시키며 반통일세력의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5일

김정일총비서께서 평양산원에 산꿀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평양산원에 많은 량의 산꿀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 평양산원이 개원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산모들을 위하여 30여차례에 걸쳐 보내주신 산꿀의 량은 수십톤에 달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가 건강해야 어린이들이 건강하며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조국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몸보신에 특효가 있는 산꿀을 산모들에게 보내주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 주시였다.

그리고 곰열과 록태고, 검정닭, 산천어를 비롯한 귀중한 보약재들과 영양식료품들을 산원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일본의 대형운반로케트 ≪H2A≫ 2호기발사의 위험성을 폭로
조선 외무성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일본이 4일 대형운반로케트 ≪**H**2**A**≫ 2호기를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로케트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은 최근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 있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이 거침없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은 ≪반테로≫의 간판밑에 지난 반세기동안 내외의 엄한 시선과 압력이 두려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유사시법제≫를 정비하고 ≪자위대≫의 기본임무를 ≪방위≫로부터 ≪해외진출≫이라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공공연히 전환시키고 있다.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중거리미싸일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비밀리에 추진해 왔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고도기술과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년간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지밑에 자체의 간첩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독자적인 우주정탐체계를 세우는데로 질주하고있다. 이처럼 해외팽창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일본이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가지게 되면 과연 어느 길로 나가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과 ≪대량살륙무기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험담을 퍼붓고 있는 미국이 일본미싸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뒤에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이 말로는 미싸일전파방지를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자기 동맹국의 미싸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적대국의 미싸일만 문제가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미싸일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기때문에 우리 미싸일문제를 걸고 들고 있으며 결국 미싸일문제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목적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줄뿐이다.

미국이 미싸일문제를 걸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침략기도를 전례없이 로골화하고 있고 그에 편승하여 일본이 실질적인 미싸일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현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자주적인 국방력을 더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을것이다.

리회창의 반통일망발규탄
천도교청우당 대변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행각하여 부쉬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적극 부추긴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대변인은 리회창이 부쉬호전광의 그 누구의 ≪핵개발≫이니, ≪대량살상무기개발≫이니, ≪재래식무기감축≫이니 하는 폭언에 키질을 하다못해 통일된 후에도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리회창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권력욕을 채우려는 외세의 충견이고 간악한 정상배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천하에 둘도 없는 미국호전광의 이런 충견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3천리강토가 페허로 되고 온 민족이 핵전쟁의 재난에서 벗어 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리회창은 자기가 저지른 반민족, 반통일, 반공화국범죄에 대하여 온 민족앞에 똑똑히 사죄하여야 한다.

백두산밀영고향집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탄생(1942.2.16)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곳이다. 이곳은 량강도 삼지연군의 백두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고향집은 두개의 출입문과 하나의 창문이 달린 통나무로 지은 소박한 귀틀집이다.

이곳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와 더불어 온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있는 혁명의 요람이다.

고향집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애용하시던 놀이감들과 포단, 모포, 베개 그리고 살림도구와 부엌세간 등이 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는 룡마바위, 장검바위, 해돋이바위가 있고 옆에는 ≪정일봉≫이 높이 솟아 있다.

고향집앞에는 또한 주석께서 그이의 탄생일(1992.2.16)에 즈음하여 몸소 쓰신 시 ≪광명성찬가≫를 새긴 비가 있다.

주체76(1987)년 2월 11일에 개영된 이곳으로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금까지 그 수는 370여만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곧 조국통일
로동신문

≪로동신문≫ 5일부는 북남공동선언을 지키면 통일이고 빼앗기면 영원한 분렬이라고 하면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 선언의 리행에 떨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이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은 또한 북과 남사이에 인도적문제들을 풀어 나가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 문제들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고수리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것은 공동선언이 발휘하고 있는 거대한 생활력을 통해 남김없이 증명되였다.

조선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공동선언고수, 리행에 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로동신문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고 온갖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테로와 억지로 관련시켜 군사적으로 덮쳐 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로동신문≫ 5일부는 그가 직접 우리 공화국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침략위협을 가해 나선것은 근래의 조미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며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군사적침략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무대를 펼치려는것은 치명적인 오유로 될것이다. 조선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며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도 아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본업으로 삼는 미국에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영웅적인민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장의 선군령도로 그 어떤 침략자들에게도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덮치려고 덤벼드는 침략자들은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우리를 건드리는 침략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어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미국이 입에 올리기 좋아 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을 천백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쓸어 버릴것이다.

미군주둔을 위한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민주조선

오늘호 ≪민주조선≫은 최근 미국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북조선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위협≫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흑백을 완전히 전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동북아시아지역이 세계최대의 열점지대로 된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과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개해 놓고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군사적위협을 감행하였다.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전쟁위협≫이 존재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다.

명백히 하건대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기도를 실현해 보려고 이따위 거짓나발을 불어 대고 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로근리학살만행진상이 더욱더 밝혀 지고 서울 룡산기지이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반미감정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이에 질겁한 미국은 우리와 중국을 걸고 듦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고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의 명분을 세워 보려고 꾀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저들의 부당한 목적을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따라 조국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서자(2)

로동신문 논설 (주체91년 1월 7일)

북과 남에는 엄연히 서로 다른 두개의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다.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어느 쪽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다.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게 되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 낼수 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은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

북과 남의 인민들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거쳐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 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이다. 물론 북과 남사이에는 반세기이상이나 존재하여 온 서로 다른 두 제도와 관련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년을 내려 오면서 형성,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다. 우리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을 가진 단군의 후손들이다. 북과 남의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 져 살아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 못할 조건으로 될수 없다. 민족적공통성, 민족적동질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구현한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북과 남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리익을 침해 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 및 호상관계, 련방국가의 기능과 성격, 련방국가의 국호에 이르기까지 통일국가의 창립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 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도를 밝힌 여기에 6.15북남공동선언이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근거의 다른 하나가 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의 화합과 대단결을 떠난 통일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민족의 대단결에 조국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대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 없이 모두가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말로써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행정에서 뜻과 힘을 합쳐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해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래왕,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해 나간다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지난 년간들에 진행된 8. 15통일대축전들은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떨쳐 나서기만 한다면 조국통일운동에서 얼마든지 뜻과 힘을 합칠수 있고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뛰여 넘어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사이에 인도적문제들을 풀어 나가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참으로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민족, 온 세계앞에 공포한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온 겨레가 들고 나가야 할 민족자주통일의 기치,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그것이 있어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은 더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생활력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겨레의 애국애족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 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재결합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더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조국통일의 흐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끝)

높은 실력을 지닌 유능한 실천가가 되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년 2월 5일)

5일부 ≪로동신문≫은 ≪높은 실력을 지닌 유능한 실천가가 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현실은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높이에서 창조적으로, 우리 식으로 풀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자면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온갖 풍파를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우리 간부들, 모든 일군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고 높은 지식수준과 능력을 가진 실력가가 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전개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대중을 묶어 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도 우리 일군들이다.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일군들의 실력에 모든것이 달려 있다.

실력은 곧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은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으로 세계를 개조해 나가는것만큼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실력을 가져야 혁명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누구나 아는것만큼, 능력이 있는만큼 일하기 마련이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어떤 일도 잘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실적을 낼수 없다. 당앞에 다진 결의도 지식과 능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하면 빈구호로 된다. 실력이 있어야 진실로 당에 충실할수 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녀야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을 전개할수 있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룩해 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참신하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펼치시는 모든 구상과 작전, 강성대국건설의 목표와 과업들은 비상히 높고 웅대하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서 사업을 전개하자면 누구보다도 높은 실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실천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민감하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방법론을 지닌 지휘성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슨 과업을 주시여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제끼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자강도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높은 실력을 지닌 일군만이 희세의 실력가이신 장군님의 손발이 되고 대중의 기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창조와 혁신의 불을 지피는 문제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큰 변혁을 일으켜 나가는 근본비결도 실력에 달려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일군답게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실력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실력전의 시대이다. 정보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에 실력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실력을 높이는것이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근기 있게 벌려야 한다.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높이 들어야 할 충성의 구호이다.

일군들은 높은 실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일군들의 실력문제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문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일군은 례외없이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는 독학가이며 실력으로 사업권위를 세우고 실적을 내는 실천가이다. 우리 혁명력사에 실력가형의 일군으로 이름을 남긴 김책동지는 경제와 기술도 배운것이 없지만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정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 주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선군시대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든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기에 완강한 실력전을 벌려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수 있었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구호도 높은 실력이 있어야 실천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실력가형의 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당건설과 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 걸쳐 투쟁과업과 방도가 다 밝혀 져 있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능란하게 풀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 나갈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원리적으로, 사상리론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과 문헌들을 자자구구 따져가며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과 문헌학습을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를 환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오늘의 시대에 투쟁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이 첫째 가는 실력이라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은 필수적인 제2의 실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보산업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지니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콤퓨터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일군의 풍모이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사업에 대한 전문가다운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 사업에 대한 전문가다운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최관준동무처럼 당정책을 잘 알고 과학기술과 실무에 밝으며 자기 맡은 사업에 대하여 환히 꿰뚫고 있는 일군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문학예술도 알고 문화정서수준도 높아야 한다. 아는것이 많고 정서가 풍부할수록 현실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할수 있고 사업을 활력있게, 창발적으로 할수 있으며 우리 시대 일군다운 고상한 품성을 지닐수 있다.

학습과 혁명실천은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타고 난 실력가란 없으며 실력을 높이는 묘술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성공의 열매는 오직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에 의해서만 맺어 지는 법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실력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당일군들부터 학습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누구나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고 배운지식을 실천속에서 공고화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활기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높은 실력전을 벌려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실력전의 시대의 일군답게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위대한 김정일동지 혁명역사강좌 제164회 - 학사 김장호선생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주체91년 2월 5일

안녕하십니까? 이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자주화 위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인 사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성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일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으로 됩니다. 세계의 자주화 위업이란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입니다. 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반제자주역량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화 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 담보로 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세계평화애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역량입니다. 이 반제자주역량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 나라들과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중 두 당, 두나라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9월 위대한 수령님의 중국방문을 전후하여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 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지시를 각급 당조직에 내려보내게 하시고 중국방문 친선참가단의 파견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의 내왕과 접촉을 강화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연계와 협조를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2(1983)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친히 중국을 방문하시어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동, 베이징, 청도, 남경, 항주, 상해, 베이징에 이르는 1만킬로메터(2만 5천리)의 노정을 밟으시며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이 비공식 방문이었으나 외교관례를 마스고 그것을 정식으로 세상에 공개하였으며 서방통신들은 이 방문을 보고하면서 세계에서 최대의 충격파를 일으킨 사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2(1983)년 9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의 당 및 정부대표단을 친히 영접하시고 지방참관도 함께하시면서 친분관계를 두터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 정부, 군사대표단과 친선참관단의 호상방문과 래왕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80년대에 이어 90년대와 그 이후에도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 계속 큰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과 주체90(2001)년 1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어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상봉하시고 조중친선을 더욱 두터히 하셨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9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를 접견하시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해나가시였습니다. 이와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중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력적인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택동, 주은래를 비롯한 중국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강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 놓았으며, 또한 반제자주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공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조중친선의 전통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각국 노동당 공산당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대표단들은 주체74(1985)년 한 해에만도 70여차에 거쳐 대외에 나가 여러 정당들과 회담을 했고, 주체79(1990)년 10월 한달동안에는 영국공산당 벨지끄르 노동당 당수를 비롯한 수십개 당의 지도자들과 회단과 접촉을 가졌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당은 세계 각국의 여러 정당지도자들과 대표단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친선관계를 두터히하고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자료적으로 보면 1985년 한 해에만도 핀란드 공산당, 브리스 공산당 도이칠란드 공산당 노루웨이 공산당을 비롯해서 90여개의 당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주체79(1990)년대 실현해 우리 당창건 45돌 경축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세계 5대륙에서 126개나라의 276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내왕과 접촉은 당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두터히 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온세계의 자주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나라들과 각국 노동당 공산당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당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단결과 세계혁명위업수행의 불멸의 공헌으로 되었습니다.

장군님은 다음으로 쁠럭불가담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시대의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 시키는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특히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이 운동을 본래의 이념과 원칙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67(1978)년 당시 쁠럭불가담 운동앞에는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쁠럭불가담 운동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은 이 운동을 말살해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유물인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는 중재요 보호요 하면서 분쟁문제에 경쟁적으로 끼여들어 노골적으로 간섭해 나섰으며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놓으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이간책동은 1978년 7월 25일부터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되는 쁠럭불가담국가 외무상회의를 앞두고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제국주의자들은 ≪베오그라드에서 시작된 제3세계 운동이 베오그라드에서 붕괴될 것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불럭불가담운동의 종말에 대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직면한 이러한 사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분열 파괴책동에 통일과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회의를 분열의 회의가 아니라 단결의 회의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이번 베오그라드 회의를 단결의 대회로 되게 하자면 회의 전야에 드리운 검은 장벽을 밀어내야 하며 그러자면 회의방향을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쁠럭불가담 운동에 대한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공식보도문을 무게있게 잘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공식보도문에 담아야할 내용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이의 예언은 정확하시였습니다. 우리의 공식보도문이 나가자 세계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주의 힘찬 외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단결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망한다≫ ≪자주성은 단결의 기초≫ 이리하여 베오그라드회의는 첫시작부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해 나갈 확고한 결의가 차있는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영도에 의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위기에서 구원되고 자기의 근본 이념과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지켜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 및 국가건설 교육 보건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을 도와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에따라 주체76(1987)년 7월 고위급 당일꾼들로 구성된 22개나라 집권당들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우리당의 풍부한 당건설 경험과 실천적 모범으로 발전도상 나라들의 발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남협조의 정신을 당건설분야에 훌륭히 구현한 역사적인 토론회로 되게 하였습니다.

쁠럭불가담 나라들에 대한 우리당의 사심없는 지원과 협조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오늘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관계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유효성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정세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이념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더욱 뚜렷히 실증해 주고 있으며 이 운동의 존재를 계속 보존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자주역량의 주류를 이루고 반제자주화 운동의 주되는 추동력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 이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 5명 미대사관 항의방문

김성호 허운나 송영길(이상 민주당) 김원웅 안영근(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은 6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부시 미국대통령의 잇다른 대북 강경발언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36명 이름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과 우방이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나 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군사적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월 7일

파월 발언과 미군의 양민학살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발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월7일자 주요 일간지 1면은 파월 미 국무장관의 청문회 발언 등 ≪북미관계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조선≫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뽑았고 ≪동아≫는 북미관계 관련 국내 정치권 대응 상황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북미관계 낙관론을 비판했다.

반면 ≪대한매일≫은 정부가 햇볕정책 유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로 뽑는 한편 ≪북과 언제든 대화용의≫있다는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다. 하지만 파월 장관 발언을 머릿기사로 뽑은 ≪한국≫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반문명적 국가체제≫를 변화시킬 것≫임을 강조하는 강성 발언을 부각시켰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관련 보도를 1면 머릿기사로 뽑아 눈길을 끈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 40건이 접수됐으나 국방부가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사실확인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방한 저지,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시민사회단체, 부시방한 반대 합동기자회견 가져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항의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6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시방한 반대 제 민주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목소리로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봄은 왔는데 부시는 전쟁을 몰고오고 있다≫며 ≪부시방한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경찰들이 미대사관 가는 길을 계속 폭력적으로 막고있다≫며 ≪오늘 경찰들이 하는 일은 매국행위로 낱낱이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경찰의 저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어 조희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월 24일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반미연대기구들이 부시방한 반대 방안 논의를 시작해서 오늘 603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한저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전쟁확대 중단과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MD강요, 전쟁무기 강매 중단 △미군기지 반환 △미군범죄 사과와 소파협정 개정 △6.15공동선언 실현 방해 중단 △한미공조 중지 등의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최측은 △부시방한 반대 설 귀향선전전 △1인 릴레이 시위 △16일 부시방한 반대 전국동시다발 집회 △18일 한반도 평화선언 대회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 △부시방한시 그림자 투쟁 △20일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한일연대사업 △부시방한 반대 캠페인 등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와 미대사관 측의 접수거부로 전달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시각, 미대사관 앞에서는 김성호, 송영길, 허운나, 김원웅, 안영근 의원 등이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언과 관련해 주한 미부대사와 면담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돼 취재진들의 관심이 순간 집중되기도 했다.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면담 내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논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소≫에서 17일 부시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맞춰 주일 미대사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 전해져 부시의 동아시아순방 기간에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후 거세게 진행됐던 각계각층의 부시방한 반대의 움직임들이 단일한 행보로 모아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향후 부시방한저지 움직임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대학 2백여개 과 ≪금강산 모꼬지≫ 추진

대학생들이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7일 전국대학 과반학생회 및 학회소모임 대표들은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진행될 ≪금강산관광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전국 과학생회장단 대표 10여명이 나와 전국 200개과 · 반학생회 금강산 모꼬지(MT)사업 추진을 발표,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결정을 환영하고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지원을 ≪대학생≫까지 확대지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은 ≪수익사업≫의 의미를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사업으로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다≫며 ≪북녘땅을 직접 밟아보고 체험하는 것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이 민족의 통일을 진지하게 사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학생들의 기자회견 후에는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창립총회가 이어진다. ≪금강산 사랑 범국연대≫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 2회 금강산평화마라톤 사업 등이 발표된다.

아래는 이날 발표될 기자회견문이다.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환경속에서 50여년동안 갈라져 살아온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잦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마음의 ≪분단장벽≫부터 허물어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금강산은 관광사업이 안착화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수익사업≫의 의미를 뛰어넘어 민족화해의 물꼬를 튼 통일사업으로 우리 국민의 커다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는 이산가족 · 학생 · 교사 등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 판매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난관에 봉착한 금강산 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아 민족의 화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램을 반영한 조치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의 출범 또한 통일을 바라는 국민적 성원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으로써 ≪통일시대≫를 예비해야 합니다. 웅대한 통일시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과 높은 포부를 가지고 오늘의 대학생활을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의 대규모 금강산 관광사업은 체험을 통해 ≪통일≫을 공부하고 대학생들의 역할을 모색하는데서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부여하기보다 순수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권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의지를 받아들여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에 ≪대학생 관광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이야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며 ≪제 2의 평양광란극≫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민족화해의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중을 왜곡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2년 전국 대학생들의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관광차원을 넘어서 통일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1.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최소 200개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을 실현할 것 입니다.
2. 3월중에 진행될 전국 대학 과반학생회 개강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학우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대 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3. 전국 대학에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민족통일을 주제로 한 자료집과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것입니다.
4.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천하제일 비경, 금강산에 직접 발을 딛어볼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통일을 향해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2년 2월 7일

전국 대학 과반학생회장 · 학회 소모임 회장 · 동아리 회장 일동

이회창 방미규탄 1인 릴레이 시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2002년 2월 5일)

6.15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외세에 추종하고,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갖은 반통일적 언사와 행동을 하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규탄을 위한 일인 시위가 6일째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 임석준 회장님이 1인 릴레이 시위주자로 참가하였고, 노점상 사무차장님이 선전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의 구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우리의 시위에 대해 말씀을 물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시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요즘 전세계와 한반도는 부시의 오만무도한 발언에 우려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연두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북강경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한 장본인이며,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흉내내며, 외세추종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회창이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니, 북미관계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부시정권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회창의 발언은 미국이 북에 대해 강경정책을 펴는 명분이 되고 있는 핵사찰이니, 미사일 문제의 검증이니 뭐니 하는 것을 동조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비굴과 매족배족의 이회창 규탄투쟁을 당면정세와 이에 따른 반미, 반전, 자주통일의 대중적 정서에 맞게 이를 결합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부시방한반대투쟁을 힘차게 준비하며,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시정배 이회창총재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6일 또다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가리켜 ≪미제의 주구≫ 등의 언사를 쓰며 격렬히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대변인 담화에 이어 2일에는 조선중앙TV ≪시사해설≫ 코너에서 이 총재의 방미행적을 집중 비난한 바 있다. 6일 조선중앙방송은 ≪미국호전광들의 주구, 특등 사대매국노≫라는 제목의 ≪시사논단 논평≫ 코너에서 이 총재의 방미 언행을 재론하며 ≪철두철미 미국 대통령 부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친미사대 매국 행각이었고 대통령 자리를 따내는 데서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너절한 구걸행각이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특히 이 총재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차단봉을 내리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다≫며 이 총재를 가리켜 ≪반통일악당≫, ≪민족의 원수≫, ≪정치적인 시정배≫, ≪인간쓰레기≫ 등으로 비난했다.

한편 지난 1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남북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차이에 대하여 (1)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편집국 보도 41호)

전위당이 90년대초에 발표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논문에는 당면전취목표로서 일반민주주의실현만을 언급할 뿐 민주연립정권수립은 나오지 않는다. 과연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은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보고 전자에 후자를 포함시켜 전자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을 별개로 보고 당면해서 전자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민전이 90년대초에 발표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관련 부분이다.

≪주되는 전취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조적 전취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 보조적 전취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주되는 전취목표를 용이하게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보조적 전취목표란 어디까지나 주되는 전취목표에 귀속되는 목표로서 전략적인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인 목표이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전취목표는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전취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연립정권 쟁취에 의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우리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로 되는 것은 우선 우리 사회의 특성과 관련된다.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는 극도로 파쑈화된 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초보적인 부르조아변혁단계도 거치지 못한 채 미제에 의해 파시즘이 이식됨으로써 만성적인 군사파쑈통치의 형틀에 결박된 사회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위시한 모든 선진적인 사상과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온갖 진보적 운동이 완전히 비합법화되고 있으며, 이념정당의 결성은 물론 중간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과 심지어 노동자 농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투쟁마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정치생활의 파쑈화는 현시기 한국에서 변혁역량을 장성시키고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전투에서 다리 하나 점령하려 해도 교두보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우리 변혁운동에서 전략적인 주되는 목표를 점령하려고 해도 파쑈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파쑈독재를 제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변혁운동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변혁역량을 급속히 성장시키며, 변혁의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쟁취에 의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우리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 민중의 요구와 의식, 투쟁과도 관련된다.

최근 수년간 우리 민중 속에서는 반미자주의식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으면서 반파쑈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주되는 전취목표로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보조적 전취목표로 제기해야 민중의 반파쑈민주의식에 기반한 민주화운동의 강화로 주되는 전취목표의 실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반미자주 의식화 과정 자체를 촉진시킬수 있다.

우리가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인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사회정치생황의 민주화는 전략적인 주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목표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중화가 전술적 목표가 되는 것은 파쑈적인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로 교체하는데 국한된 변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가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는 전략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복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과도적 단계로서의 전술적 의의를 갖는다는 그 점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부수립을 변혁의 기본목표로 제기하고 군정을 민정으로 교체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경적 견해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변혁은 중도에서 좌절되고 변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으며 40여년동안 피흘려 싸워온 우리 변혁위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반파쑈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하나의 계급해방투쟁과정으로 전개하려 하면서 그 목표를 노농정권 수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좌경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렇게 되면 변혁은 자기발전의 합법칙적 발전단계와 침로를 이탈하여 큰 암초에 부딪혀 좌초당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의의있는 꼭 필요한 투쟁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통해 파쑈정권이 파괴되고 민주연립정권이 수립되고 정치체계에서 일련의 개혁이 실현된다고 하여 민중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경제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인 정치생활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면이 마련될 뿐이다.

그러므로 파쑈적인 정치체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민중적 사회제도로 교체하기 위한 민중주도의 민주주의변혁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하나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범주에 속하는 운동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또한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범주에 속하면서도 그의 변혁임무와 대상, 동력 등에서 자본주의제도 수립을 가져왔거나 그것은 공고화한 역사상의 모든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1848년 프랑스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18세기 말 부르조아변혁에 의해 봉건잔재가 타도된 여건에서 산업부르조아지가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부르조아 정치세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8년 독일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귀족지주인 융커세력과 부르조아군주제를 타도하기 위해 전개되었으며, 1931년 스페인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부르조아지가 귀족과 봉건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적 군주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 전개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1911년, 1912년에 신해혁명은 봉건군주제도의 타도와 부르조아 공화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은 19세기 중엽의 프랑스나 20세기초 독일, 스페인과는 다른 식민지에

→

광고

PDF 총서

21세기 태양

노작
4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5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10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정치사전
14 속도전
15 속도전청년돌격대

70년대 속도전
16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
18 기본건설전선은 중심고리

20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22 당중앙의 70일전투
23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24 새로운 대비약
26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형식 －속도전
28 속도전의 선구자로

일화
36 70일전투
40 뜻깊은 전국영웅대회
43 새로운 비례공식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PDF편집물 21세기 태양 총서.
인터넷 구국전선(ndfsk.dyn.to)과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www.nadrk.org),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www.kdlp.org)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 전개되고 20세기초에 반식민지였던 중국과도 다른 미제의 직접적인 군사적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하에서 미제가 통치방식으로 채택해 감행하고 있는 파쑈를 척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인 것이다.

우리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이같은 특성으로부터 여기에서 창출해 낼 정권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파쑈독재정권을 어떤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에서는 각당각파 각계각층 민주세력의 연합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한국의 현 정체세력들의 힘의 관계와 관련된다. 현재 반파쑈세력들을 볼 때 노동자 계급의 조직된 정치세력이 아직 강고하게 꾸려져있지 못하고, 재야 정치세력도 결속과정에 있으며, 보수야당도 단독으로는 정권을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현 파쑈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 각계 민주세력의 힘을 하나로 합쳐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민주연합세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파쑈세력을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민주세력이 집권할수도 없을 뿐아니라 권좌에서 내몰린 파쑈세력의 저항과 정권에 복귀기도를 물리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득불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창출되게 되는 정권은 어느 한 특정한 당이 지도세력으로 되는 단일 집권당의 정권이 아니라 반파쑈민주화세력의 연립정권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연립정권은 몇개 부르조아정당 및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각료직을 나누어 가지고 구성되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연립정부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자본주의국가의 연립정부는 그 본성에서 부르조아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를 변화시킴이 없이 그의 바탕위에서 정치를 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민중이 세워야할 반파쑈민주연립정권은 파쑈적 정치체제를 격파하고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되는 사명으로 하고 있다. 반파쑈민주연립정권은 그 구성에서 볼 때 파쑈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정권에는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며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성공적 역할을 한 청년학생들이 자기의 대표조직 또는 그들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적 인사들을 내세우는 형식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지성인들, 반파쑈투쟁에 기여한 민주인사, 종교인, 중소기업인들도 참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은 파쑈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안전기획부와 기무사를 비롯한 모든 파쑈기구들을 해체하고 파쑈적인 경찰 사법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며, 국가보안법, 노동법을 비롯한 파쑈적 악법들을 폐기하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신앙, 사상신봉의 자유를 유보없이 보장하며, 파쑈적인 정당단체들을 해체하고 진보적인 이념, 정당, 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이며 민주연립정권의 쟁취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로써 우리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조적 전취목표는 주되는 전취목표와 결합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할 이론적 실천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차후에 제기해야 할 주되는 전취목표라는 그 점이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문제를 현단계에서는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로 제기하지 말며, 만일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전면에 내세울 때 목표설정과 역량편성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만 그러한 차후에 제기할 주되는 전취목표가 현단계에서의 한국 변혁운동에서의 주되는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 발전시켜 수행해 간다는 점만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다음은 최성원동지의 논문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2001.5)의 관련 부분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민중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하며, 또한 연방제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민주강령은 일반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령이다.≫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필리핀 상원의 철군파였다. 1947년에 체결된 미국-필리핀 군사기지 협정이 1991년 9월 16일에 만료되자 철군파는 미군 주둔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아키노 정권과 부시 정권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거부하였다. 필리핀 상원의 거부표결로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군을 철수하였다. 철군파의 등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1986년 2월에 이른바 ≪인민의 힘(People's Power)≫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던 정치세력의 집권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마르코스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린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1992년에 미군이 철수될 때,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1957년에 필리핀 공산당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전복활동금지법을 철폐하였으며, 자기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필리핀 민족민주전선과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평화협상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 4월 8일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평화협상 대표들이 아로요 정부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민중적 민주역량을 강화·장성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민주강령의 총적 목표는 일반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인권선진국≫의 건설이 아니며, 오직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9,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